

두산인문극장 2017: 갈등 Conflict

[강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넘어서:
경제적 갈등의 집단적 성격

홍기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요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지구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산업사회의 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자본주의』 등이 있으며, 『경제인류학 특강』,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거대한 전환』 등 여러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보내드리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넘어서: 경제적 갈등의 집단적 성격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이 강연은 인간 사회의 경제적 갈등이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 이후 경제학은 경제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국한하여 집단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과 의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폐단이 있었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사상가 토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의 경제 문명론과 본능론에 입각하여 분배의 갈등이 집단 간의 문제라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만 경제 집단의 (즉 “계급”) 존재를 구별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과 달리 다양한 여러 종류의 집단들이 각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권력 과정이 사실상 경제적 갈등의 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특히 지난 몇 십 년 간 진행된 세계 각국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과정이 지배 집단의 권력 강화 과정의 산물이었음을 살펴본다. 산업 시대로 들어선 인류가 이러한 파멸적인 집단적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기본적 명제를 사회 조직의 근본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 논의 내용

- 경제적 갈등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개인 vs. 집단
- 집단 간의 갈등으로서의 경제적 갈등
-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신분” 확보의 투쟁
- 최근 몇 십 년 간의 경제 불평등의 심화와 권력 투쟁

인간 세상에 내재한 집단적인 “경제적 갈등”의 논리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장치가 없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집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며 그 강도는 갈수록 심해진다. 이 과정은 일정한 균형 상태(equilibrium)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이들은 권력을 축적하게 되면서 그 권력으로 다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더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일종의 순환적 과정을 가게 될 확률이 더 크다. 베블런도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뮌스터가 말하는 바, 순환적 누적적 인과 관계(circular cumulative causation)가 작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쉽게 말해서 일정한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되먹임 과정이 누적되면서 구조 전체의 변환이나 붕괴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배 계급이 권력과 부의 일방적 축적에 대해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두지 않을 경우 사회가 붕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이 종교, 정치 철학, 그 밖의 관념 제형태들이 말하는 몫이기도 하다. 일정한 한계를 두지 않고 경제적 갈등의 권력 투쟁을 무제한으로 방치하게 되면 인간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밑등부터 붕괴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기를 어둡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이 가차 없이 진행되는 불평등 심화가 에너지 및 환경 위기 혹은 각종 사회적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리게 되면 어떤 종류의 폭발을 일으키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무제한의 경제적 갈등과 “인정 투쟁”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일정한 원리를 모든 사회가 아니 인류 전체가 명시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것이 “모든 이들은 살아야 할 삶이 있는 존재다”라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2 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 사회권을 이론화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회학자 마셜(Th. Marshall)은 시민권을 모두가 일정한 “사회적 가치(social worth)”가 있는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말한 바 있다. 상당히 모호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마셜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절대 평등을 실현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거부들의 배를 갈라 재산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자본 축적도 경제적 인정 투쟁도 좋지만, 그 한계는 모든 이들이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도록 재분배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살아야 할 삶”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 우리의 삶이란 결코 숨을 쉬며 연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삶이란 무엇보다도 의미이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나의 활동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문화와 생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일과 관계와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할 삶을 가지고 있다.